

REVLON에서의 면접

L'ORÉAL THROUGH GILLETTE · 17

나는 Ronald Perelman이 Gillette를 강제로 인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Warren 삼촌이 언제나 그를 막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. 그리고 Perelman은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서 소란을 피웠지만, 늘 하던 대로 계속했다. 다른 모든 사람을 들볶는 일을.

Revlon Italia 경영진에게서 전화가 왔다. 그들의 영업 이사가 카타니아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. 아버지께 말씀드리자, 아버지가 말씀하셨다. "당연하지, 꼭 가야 한다. 시장이 너를 인정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고 내놓는지 알아볼 기회니까. 하지만 감정으로 결정하는 실수는 하지 마라. 집에 가지고 와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야 대답해라."

나는 그 금요일 아침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. 10시 30분, 카타니아의 Jolly 호텔. 그리고 로비에 들어서는데, 누구와 마주쳤을까? 나의 Gillette 지역 매니저였다. 그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. "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담당 지역에 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"

"하루 휴가를 냈어요. 4주 전에 보내 드린 월간 보고서에 바로 이 날이 표시돼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."

"그럼 여기서는 뭘 하는 건데?"

"글쎄요, 그냥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. 그 사람이 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. 농담을 이어 가자면, 적어도 여자였으면 좋겠네요."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내 직감은 맞아떨어졌다. 그 만남에서 나는 남자를 만났지만, 아주 여성스러운, 지나치게 여성스러운 남자였기 때문이다.

면접은 7분 걸렸다. 그가 일어나 내 옆에 와서 앉으려는 순간, 나는 그 의도가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. 하지만 나는 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적에게 자리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.

나는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젤라토를 먹으러 나갔다.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1킬로미터, 적어도 사람들이 레조칼라브리아의 우리 해안 산책로를 두고 그렇게 말한다.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고, 나는 그 제안은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었고, 감사 인사를 한 뒤 거절하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다.

나는 세부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. 그것은 나의 어머니, Gillette가 가르쳐 준 것이다.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틀린 적이 없었다.

Ferdinando